

東洋書 추천목록의 빈터

「中國의 古典 100選」을 다시 보며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동양고전의 리바이벌 붐이 일고 있다는 말을 출판가에서는 최근 하고 있다. 「삼국지」 「열국지」 「수호지」 등이 다시 나오고 또 제법 팔리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국고전소설들의 리바이벌이라고 해야 한다. 사서삼경들이나 이보다 광범위한 동양의 실제 고전들이 다시 나오거나 또 읽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60년대 이래 점차로 동양고전에 대한 읽기나 그 관심은 실은 놀랄만큼 축소되어 왔다. 60년대 전반만 해도 한국 출판사들의 명성을 만들게 했던 것은 동양의 경서를 누가 더 착실하게 간행하고 있느냐였다. 그러나 오늘 90년대초에 있어 동양경서나 또는 동양서목적으로 승부를 내고 있는 출판사란 극히 적다. 60년대 이래 그때에 만들어졌던 동양서판본이 그대로 복사되어 전집물로 구성된 목록만이 외판시장이나 덤핑류시장에서 값싸게 팔리고 있을 뿐이다.

이 현상만을 좀 주시하자면 참으로 기이한 형세라 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바른 정신의 기반위에 서 있는가를 이 현상만으로도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한다. 현실은 보다 더 편협하게 서양적이 된 셈인데 그렇다고 또 서양고전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도 아니다.

조금은 동양적 취향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은 할 수 있다. 내용의 논의를 떠나 목록만으로 말하자면 크리슈나무르티와 라즈니쉬의 성공이 동양적 취향의 재기가 아니냐 할 수도 있다. 중동까지 포함해서 탈무드의 반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일 뿐이다. 서양인인 헤르만 헷세가 동양정신으로 들어오는 「싯달타」나 「유리알 유희」만 해도 그다지 근자에는 읽히지 않는다. 그러나 아놀드 토인비의 책이 읽힐리 없고 동양미술에 대한 재해석 도서들이 독자를 얻어낼 길이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세계적 입장은 동양과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로의 등장이다. 그저 한국이 올림픽을 치뤘다고 해서 세계의 데뷔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으로 특히 어떤 정신으로 우리의 세계화가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손쉽게 말해서 유럽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말하기의 한끝에 적어도 한국에서의

孔자의 평가, 서울에서의 老子의 음미, 또는 삶의 세타이어로서의 韓非子의 인용쯤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元曉나 李珣가 되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이미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무너져 있다. 그저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동구인들이 먼저 잊고 싶어 하는 마르크스의 이름과 그의 저서명들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나는 이 시리즈를 마감하려는 부분에 동양서이야기를 해두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또 이 동양서목록으로서의 세계적 추천도서목록이란 그동안 보아 내려온 서양적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 있어서 나의 견해는 동양서 목록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고른 것이 가장 좋은 목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그리고 그럴만한 목록도 있다.

월간 「新東亞」誌가 1980년 1월호 부록으로 간행했던 「中國의 古典 100選」이 우선 그 한 예이다. 「新東亞」誌는 이 무렵 자주 도서목적으로 사상의 흐름을 정리하는 아주 잘된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중의 한 작업이었던 중국고전목록도 選考위원을 두고, 각권의 해제를 모범적으로 써붙인 정성들인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古代로부터 清末에 이르는 중국전적들을 선고대상으로 하되 동양은 물론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정되는 책들을 고른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중국에 제한된 동양서 목록이긴 하나 이 목록이 현재로서는 가장 의미있는 목록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 역시 답답한 감정을 일으킨다. 여기에 다시 나열하면서 표기하듯이 번역된 것이 너무 적고, 또 번역된 것이나마 크게 읽히고 있지 않다. 단지 책명만을 알고 있는 책들속에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제 누구와 함께 이 책들도 번역해야 하고 또 읽는 게 좋다고 할 것인가.

「中國의 古典 100選」 목록

〈문학분야〉

- 孔子編 詩經(BC 470년경)
- 屈原外 楚辭(BC 270년경)
- 許慎 說文解字(100~121)
- ● 陶潛 陶淵明集(372~427)
- 劉義慶撰 世說新語(444년경)



일련의 대중국가방조치로 중국에 대한 관심은 점차 제고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동양서 추천 목록은 아직 드물다. 사진은 중국의 천안문광장 앞 시위광경.

- ● 劉勰 文心雕龍(500년경)
- 蕭統編 文選(530년경)
- 徐陵撰 玉臺新詠(583년경)
- 李白 李太白集(701~762)
- 杜甫 杜工部集(712~770)
- 韓愈 韓昌黎集(768~824)
- 柳宗元 柳河東集(773~819)
- 李昉外撰 太平廣記(978)
- 蘇軾 東坡全集(1037~1101)
- 朱熹 朱子語類(1130~1200)
- 王實甫·關漢卿 西廂記(1260년경)
- 方回撰 瀛奎律髓(1283)
- 高明 琵琶記(1355년경)
- ● 瞿佑 煎燈新話(1378년경)
- 羅貫中 四大奇書(1494~1600)
- 藏晉叔編 元曲選(1616)
- 湯顯祖 玉茗堂四夢記(1583~1617)
- 憑夢龍 外編 三言兩拍(1621~1632)
- 何文煥編 歷代詩話(1660년대경)
- ● 蒲松齡撰 聊齋志異(1679)
- 吳敬梓 儒林外史(1740~1749)
- ● 曹霑 紅樓夢(1750년대말~1760년대

초)

- 姚鼎撰 古文辭類纂(1815년경)
- 李寶嘉 官場現形記(1901~1905)
- 劉顥 老殘遊記(1906)
- 朱祖謀 彊邨叢書(1917)

〈역사분야〉

- 孔子 春秋(BC 479년경)
- 戰國策(未詳)
- ● 司馬遷 史記(BC 91년경)
- 桓寬 監鐵論(BC 49년경)
- 班固 漢書(39~120)
- ● 陳壽 三國志(290년경)
- 慧皎 高僧傳(520년경)
- 鄺道元 水經注(520년경)
- 吳兢 貞觀政要(640년경)
- 玄奘 大唐西域記(646)
- 劉知幾 史通(710)
- 杜佑撰 通典(801)
- ● 司馬光 資治通鑑(1084)
- 徐兢 高麗圖經(1124)
- 元朝秘史(1240년대)
- 王應麟 困學紀聞(1296년경)

동양서 목록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고른 것이 가장 좋은 목록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럴만한 목록도 있다.

고대로부터 청나라 말기에 이르는

중국전적들을 선고대상으로 하되

동양은 물론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정되는 책을 골라

수룩한 「신동아」지의 1980년 신년호

부록 「중국의 고전 100선」이

그 좋은 실례이다.

- ● 黄宗義 明夷待訪錄(1663)
- 顧祖禹 讀史方輿紀要(1678)
- 王夫之 讀通鑑論(1692년경)
- 趙翼 二十二史劄記(1795)
- 章學誠 文史通義(1832)
- 魏源 海國圖志(1842)
- 張穆 蒙古遊牧記(1858)
- 康有爲 孔子改制考(1897)

〈철학〉

- ● 易經(BC 700년경)
- ● 書經(BC 600년경)
- 管子(BC 600년경)
- ● 老子(BC 510년경)
- ● 孫子(BC 480년경)
- 吳子(BC 380년경)
- ● 孔子 論語(BC 450년경)
- ● 大學(BC 430년경)
- ● 中庸(BC 430년경)
- ● 列子(BC 400년경)
- 墨子(BC 397년경)
- ● 莊子(BC 290년경)
- ● 孟子(BC 289년경)
- 荀子(BC 230년경)
- 韓非子(BC 230년경)
- ● 俞安 編 淮南子(BC 120년경)
- 董仲舒 春秋繁露(BC 100년경)
- 禮記(紀元前後)
- 王充 論衡(104년경)
- 葛洪 抱朴子(370년경)
- 僧肇 肇論(404~414)

- 臨濟禪師 臨濟錄(867년경)
- 諦觀 天台四教儀(960~970)
- 張君房 編 雲笈七籤(1019)
- 圓悟 編 碧巖錄(1135년경)
- 朱熹·呂祖謙 編 近思錄(1178)
- 羅欽順 困知記(1528)
- 王陽明 傳習錄(1518~1556)
- 載震 原善(1765)
- 康有爲 大同書(1891)
- 嚴復 天演論(1898)
- 譚嗣同 仁學(1899년경)

〈예술분야〉

- 孫過庭 書譜(687)
- 張彥遠 歷代名畫記(847년경)
- 張彥遠 法書要錄(847년경)
- 蔡條 撰 宣和書譜(1120)
- 屠隆 編 考槃錄事(1606년경)
- 石濤 畫語錄(1707년경)
- 王原祁 外撰 佩文齋書畫譜(1708)

〈과학분야〉

- 黃帝內經
- 劉徽 注 九章算術(263)
- 賈思勰 齊民要術(533-544)
- 李時珍 本草綱目(1590)
- 宋應星 天工開物(1637)

(○표는 번역된 도서, ●표는 번역된 도서로서 읽을만한 판본이 있는 도서이며, 괄호안 연도는 간행년대 및 저자 생몰년대를 통한 추정년대이다)

보다시피 이 중 31종규모가 번역은 되었으나(물론 이 번역도 완역만은 아니다. 부분번역이 더 많다) 쓸만한 번역본을 가진 것은 불과 20종이라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또 실제로 읽어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따져두지는 않으려 한다.

고전목록이라는 표현의 뒷면에는 교육적 목록이라는 의미가 있다. 고전목록들이 자주 추천되는 것도 교육적 교과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고전추천목록들은 그 사회의 가치와 지향을 담게 된다.

이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사회의 고전목록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대단히 허망하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이 답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혹 추천되는 목록에서도 또 목살된다. 孔子와 老子가 아직 살아 있을뿐이고 孟子만 해도 근자에는 그 이름을 잃고 있다. 「三國志」 경우는 추천되기보다는 그저 재미있게 읽고 있는 대중소설류 묶음속에 들어 있다. 이나마도 최근에 만화로 읽는 독자가 더 많고 소설로 읽는 독자는 많은 편이 아니다. 이미 늙은 세대의 베스트셀러로 굳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물론 「三國志」를 읽자고 하거나 「수호지」를 읽자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元曉를 다시 재발견 해야하고 知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薛聰이나 一然이나 諦觀들도 기억해야 한다면 보다 넓은 중국 고전들의 몇권쯤은 먼저 읽어 두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역시 「新東亞」의 작업을 하나 더 상기시켜 두려고 한다. 1984년 1월호 부록으로 만들었던 「역사를 움직인 100권의 철학책」이라는 목록도 있는데 이 작업속에 들어 있는 '東洋篇' 목록도 유의할 만하다.

「易經」
「우파니샤드」
孔子 「論語」

- 老子 「道德經」
- 墨子 「墨子」
- 莊子 「莊子」
- 孟子 「孟子」
- 荀子 「荀子」
- 「바가바드기타」
- 韓非子 「韓非子」
- 王充 「論衡」
- 馬鳴 「大乘起信論」
- 龍樹 「中論」
- 葛洪 「抱朴子」
- 世觀 「唯誠三十頌」
- 知顓 「法華文義」
- 法藏 「華嚴五教章」
- 慧能 「法寶壇經」
- 朱子 「朱子語類」
- 王陽明 「傳習錄」
- 王夫之 「周易外傳」
- 載震 「孟子學義疏證」

얼마쯤 의무적으로 이번 목록이야기를 쓴 셈인데 지금 나는 이 목록의 漢字가 무사히 채자되고 또 바르게 읽힐 것인지조차 알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현대화되고 세계화된 것인지는 더욱 알수 없다. 그런 느낌만을 가지게 된다.

직원모집

한국출판협동조합은 90년대 한국출판의 현장에서
씩씩하게 일할 새 일꾼을 찾습니다.

1. 직종: 기획홍보 담당(남, 여) 약간명
자격: 대졸이상의 학력자로 편집에 경험 있는자
2. 직종: 관리업무(남) 약간명
자격: 대졸 및 고졸이상의 학력자로서 출판
관리, 보급 업무에 뜻을둔 자.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마 감: 1990년 9월 20일
제 출 처: 한국출판협동조합 총무과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韓國出版協同組合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448-6 (우) 121-110
전화 716-5621 (FAX 716-2995)